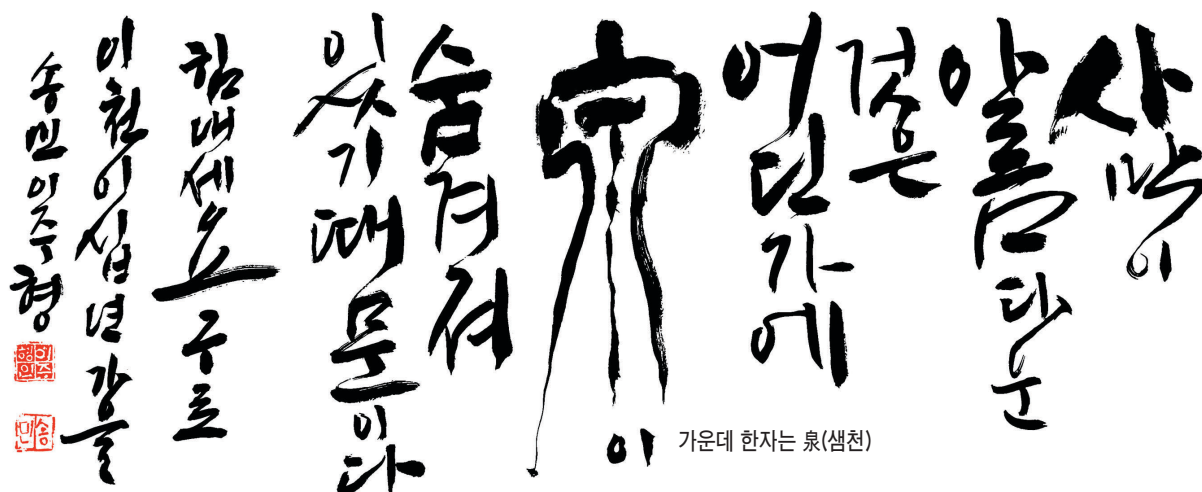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 기념 祝書

송민(松民) 이주형(李周炯)



- ▶ 대한민국미술협회 미술대전 서예부문 초대작가
- ▶ 월간서예 서화평론 주간
- ▶ 방송·영화 사극 서예자문위원
- ▶ 사) 아시안캘리그라피협회 이사장

▶ 전임 경기대학교 예술대학원 대우교수/철학박사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12길 9-40

송민서예문화연구소 02-269-86-4041

祝 詩

창간 26주년을 축하하며

구로에 흐르는 江

한 만 수 〈시인·소설가·본지 주간〉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누구나 강물이 흐르고 있다
강물은 그저 흐르는 것이 아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숙명적으로 걸어야 할
길을 따라 조용히 흐른다

구로에도 흐르는 江이 있다
46만명 주민의 숨결을 따라
순리적으로 흐르는 강이 있다

구로오늘신문은 사반세기를 넘어
26년 동안 갈고 닦은 줄기를 따라
강과 하나가 되어 흐른다

강물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다
계곡보다 낮고, 하천보다
낮은 곳에서 민심을 따라
절망과 고통은 수면에 숨기고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치며 흐른다

연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하천에 알을 품고 윤회를 하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른 것이 진리이듯
구로오늘신문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대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불지 않는대로
먼 바다를 꿈꾸며 아래로만 흐른다

그저 무심히 흐르는 것 같아도
물새랑, 물까치랑 보듬어 안고
하얗은 낙엽까지 숨결에 태워
세상을 품고 있는 바다로 흐른다

〈약력 2면〉

구로구

Digital GURO

2020 스마트 시티즌 온라인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대상 4차산업 관련 기술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접수기간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참가인원 강의별 15명(선착순)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구로구청 홈페이지 배너 클릭(www.guro.go.kr) > 수강신청

비용 수강료 및 재료비용 : 무료

재료수령 스마트 구로 홍보관(신도림역) 개별방문 후 수령(※개별 문자 발송 안내 예정)

강의내용

분 야	프로그램명	강의 일정
AI	인공지능 네오보드 융합프로젝트	11. 2 ~ 12. 14 월요일 16시~18시
VR/AR	가상현실 게임만들기	
IoT	스마트 화분 만들기	11. 3 ~ 12. 15 화요일 16시~18시
메이커	마음을 밝혀주는 스마트 무드등	

문 의 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 (02-860-2226, 2175)

기 타 프로그램별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홈페이지 참조

수강방법 Zoom 프로그램 설치 ② 문자 및 메일로 안내된 링크 접속 ③ 실시간 온라인 강의 참여

※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기 위하여 노트북 등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로구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구로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 생계지원에 나선다.

이번 긴급 생계지원사업의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다.

구로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생활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유형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위해서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고 가구원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기준재산이 6억 원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된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홀수) 일(짝수). 온라인 신청(인터넷, 모바일)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위기사유 인정기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과 12월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구로구 종합콜센터(02-2083-3881~2)로 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구로오늘신문 창간 제26주년 기념식

10월22일 오후 6시 시설관리공단 4층 꿈나무극장

46만 구로구민의 대변지 '구로오늘신문'은 창간 제26주년을 맞아 오는 10월22일 오후 6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4층 꿈나무극장에서 의정스타상,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모범구민상, 대민봉사상, 사회복지대상, 우수기업인상, 다문화봉사상

등 '창간 26주년 기념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시상식과 함께 간단한 시낭송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맞게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조촐한 기념식을 거행 할 예정입니다.

구로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9차 정기회의 개최

이성 구청장 3대-4대 회장 임기 마무리

구로구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구로구 천왕동 구로청년 일자리 문화공간인 '청년리움'에서 열린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17개 회원도시가 참여했으며, 현장에는 5개 도시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차기 임원이 선출됐다. 경기도 임병택 시

흥시장이 차기 회장으로 뽑혔다. 한편 3대(2016. 11. 7~2018.11.6)에 이어 4대 회장(2018.11.7~2020.11.6)을 연임했던 이성 구청장은 회장 임기를 마무리했다.

'지자체 연계프로그램' 기본운영 규정 제정, 지자체 외국인정책부서의 외국인정보 이용 근거 마련 등 정책안전에 대한 토론과 의결도 이뤄졌다. 내년도 정기회의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열린다.

<채홍길 기자>

◇한만수 약력

-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월간 <한국시> '역새풍' 등단
- 실천문학 장편소설 '하루' 등단
- 대하장편소설 <금강>(전15권)외 140여권 출간
- 작법서 '문예창작의 정석'외 3권

출간

- 시집 '백수블루스'외 6권 출간
- 한국문예창작진흥원 원장
- 종합문예지 '한국문예' 발행인 및 주간
- 경희대 사이버대학교 소설작법 강의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 기념사 유희상 <본지 회장>

“늘 ‘어제’ 보다 나은 ‘오늘’로 우뚝 서겠습니다”

구로구의 대표지역신문 '구로오늘신문'이 26년 전 겸허한 자세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정직과 정확, 정론 정신을 사훈(社訓)으로 앞세워 눈이오나 비가 오나 단 한 호의 결호도 없이 초지일관의 마음으로 850호를 발행했습니다.

서울 지역신문사(地域新聞史)에 기록이 되어야 할 정도로 단 한 호의 결호가 없다는 점은, 창간 사반세기를 넘은 구로오늘신문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인으로서의 정직한 자세와, 정확한 보도, 언론이로서의 정론 정신을 잃지 않고 발행되었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



살려서, 구로구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가 하면, 발행인이기 전에 문예인인 김유권 시인의 장점을 살려서 매주 구민들이 읽어야 할 시를 한 편씩 게재하고 있는 종합 주간지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로오늘신문은 앞으로도 구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유하는

니다.

구로오늘신문은 일간지가 아닌 주간지로서의 특성을

사랑방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 할 예정입니다. 구로구를 중심으로 직접 발품 팔아 다양한 기사를 생산하는 것은 물론, 더욱더 시각을 넓혀 스포츠와 문화, 생활면을 확대 할 예정이며 구민들의 채택질을 달게 받으며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참언론'의 모습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로오늘신문은 구민과 함께 호흡하고, 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구민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신문.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와 소통의 창을 넓혀 나 갈 것도 약속 드리며, 구민 여러분 모두, 늘 어제 보다 좋은 오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구의회 박동웅의장, 구로자원순환센터 현장 활동

시설물 점검, 주민 의견 청취 등 현장 의정활동 펼쳐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15일, 구로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정행정을 펼쳤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가동된 자원순환센터 시설의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장에는 자원순환센터 소장, 주민감시단,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먼저 구로자원순환센터 소장으로부터 센터의 일반현황과 폐기물 처리 현황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감시단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참석자들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압축적환시설 △음식물 적환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적환시설 등 전체 시설을 현장 소장의 설명과 함께 돌아보며, 각 시설별 역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15일 구로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정행정을 펼쳤다. 현장에는 자원순환센터소장, 주민감시단,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할 및 문제점,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박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인 쓰레기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방법을 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주민감시단과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 공무

원에게 당부했다.

현장활동을 마치고 박 의장은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자원순환센터가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로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인 현장 확인?점검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 5급 승진임용 예정자 8명 발표

구로구는 지난 10월8일 오는 2021년 1월1일자로 6급(팀장급)에서 5급(과장급)으로 승진임용예정자 8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8명은 모두 행정직이다.

5급사무관 승진임용예정자 선발엔 내년 상반기 예정된 국장·과장 공모연수 등으로 예상되는 결원 등이 반영됐다. 승진임용 예정자들은 10월 중 2주간 사무관 교육을 받은 후 연말 정기인사때 정

식으로 임용된다.

승진임용 예정자는 다음과 같다.

△강장근(감사실) △강월명(복

지정책과) △이송현(어르신청소년과) △신은옥(문화관광과) △이광식(체육진흥과) △박노선(민원여권과) △이동수(청소행정과) △정경국(도시재생과)

<채홍길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홈페이지 :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 유희상 발행인 : 김유권
주간 : 한만수 편집국장 : 채홍길
등록번호 : 서울 다-5105
구독 / 광고문의 010-9096-1144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 02)830-0905
메일 : news121@empas.com
구독료 : 월 5,000원 : 연 50,000원
기사제보 : 02)830-0905
계좌번호 :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구민의 눈과 발로 달려온 26년, 열정에 감사”

46만 구로구민과 함께 구로오늘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결해도 없이 지역사회 곳곳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주신 구로오늘신문의 김유권 발행인과 임직원 여러분의 섬 없는 열정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창간 이래 구로오늘신문은 지역 주민 곁에서 정론직필(正論直筆)의 사명을 다하며 민관 소통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 언론으로서 지역 내 소통과 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변해버린 2020년, 그리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시대에 지역신문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이 관계의 원칙이 되어가는 이 변화의 시기에 지역신문은 지면과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민과 관, 주민과 주민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가 될 것입니다.

구로구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



이 성
〈구로구청장〉

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고용보험료, 점용료 등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휴업지원금 등을, 소상공 사업체 무급휴직자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했습

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도 계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연, 축제, 심리치료 등의 분야에서도 비대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구로구는 꾸준히 추진해 온 일자리 많은 스마트산업 도시, 체육·휴식 공간이 풍부한 녹색 도시, 경쟁력 있는 교육문화 도시, 따뜻한 복지·안전한 도시, 지역균형 발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달려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들과 소통하며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로오늘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구민에 기쁨과 행복의 메신저 되어주시길”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 회 의장 박동웅입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그리움은 깊어지는 이 가을에, 지역발전을 이끌며 구민들과 함께 호흡해 온 구로오늘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진정한 언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김유권 발행인을 비롯한 기자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일상은 불편하고 경제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알리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불필요한 불안을 없애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로오늘신문이 앞장 서 주시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고 독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메신저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1994년 창간 이래 '구로오늘신문'은 빠르고 정확한 보도와 따뜻한 시선으로



박 동 웅
〈구로구의회 의장〉

독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구로오늘신문의 건전한 비판은 구로의 미래에 밑거름이 되었고, 양질의 정보는 구민들의 생활을 보다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언제나 우리 곁의 든든한 언론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로구의회도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이를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구민과 소통하며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구로오늘신문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선두에서 서서 흔들림 없는 긍정적인 보도와 비판의식으로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민의를 정확히 대변하고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로오늘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축하드리며, 독자들의 신뢰 속에서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구로구협의회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 구로구협의회장 이 학 만

※임원진

협의회장(이학만), 상임위원(김화순, 지만호), 수석부회장(이기평), 지회장(김용이, 서홍영), 간사(이희진), 상임고문(이계명, 최철학), 고문(김기선, 김봉주, 성상용, 신태희, 윤용범, 황규태, 황오주), 부회장(김경숙, 김순자, 이월레, 이해상, 이호성, 차광선, 최기현), 분과위원장(기획홍보분과-유경수, 국민소통분과-장정순, 여성분과-류윤복, 청년분과-조동준, 통일교육분과-김미주, 문화예술분과-김재숙, 사회복지분과-차정숙, 교류협력분과-한철규), 감사(강미영, 조병곤)

※자문위원(가나다순, 90명)

강미영, 곽윤희, 김경숙, 김기선, 김도영, 김미주, 김봉주, 김석중, 김순자, 김영근, 김용이, 김인제, 김재숙, 김재식, 김재훈, 김정임, 김종훈, 김지현, 김철수, 김학철, 김화순, 김희서, 노경숙, 류윤복, 류지연, 박경양, 박동웅, 박숙진, 박종여, 박철성, 박평길, 백성현, 서상현, 서호연, 서홍영, 성상용, 신인균, 신태희, 오동국, 오성숙, 오인환, 오종문, 유경수, 유민아, 유하성, 윤용범, 이계명, 이기평, 이덕순, 이명숙, 이상우, 이성자, 이월레, 이재만, 이정수, 이학만, 이해상, 이호대, 이호성, 이희진, 임여진, 임영택, 장인홍, 장정순, 장황룡, 전민표, 정경화, 정달호, 정대근, 정형주, 조규영, 조금준, 조동준, 조미향, 조병곤, 조일형, 지만호, 차광선, 차우열, 차정숙, 최기현, 최성주, 최숙자, 최은수, 최철학, 한철규, 홍성관, 황규복, 황규태, 황오주

“구민에 힘과 용기 북돋우는 ‘지역 파수꾼’에 감사”

존경하는 구로오늘신문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이인영입니다.

지역 파수꾼으로 자리를 지켜온 ‘구로오늘신문’이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힘없이 노력하시는 구로오늘신문의 김유권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로오늘신문은 오랜세월 동안 구로구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기쁜 일도 많았지만,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인 영
(구로구(갑) 국회의원
· 통일부장관)

이처럼 수많은 난관과 위기를 넘기기 위해 희망을 이야기하고, 어려울 때 일수록 지역주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우는 지역 언론이 구로오늘신문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구로오늘신문은 정론직필과 올바른 지역 여론형성에 이바지한다는 설립목표를

바탕으로, 구로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봅니다.

구로오늘신문의 창간 26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구민의 사랑을 받는 100년 신문, 구로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신문으로서 계속 자리하길 바랍니다.

“한결같이 구민의 ‘눈과 귀’ 구로오늘신문 화이팅”

창간 이래 한결같이 구로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준 ‘구로오늘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4년 10월 5일 창간호가 나온 후로 구로오늘신문은 26년 간 구로 곳곳을 발로 뛰며 소식을 전하고 ‘구로’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구로오늘신문이 없었다면

바람에 흩날렸을 구로 주민의 소중한 일상이 역사가 되고 의미가 된 것은 구로의 커다란 자산입니다.

구로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따뜻한 공감과 냉철한 감시라는 언론의 본질을 잊지 않고 묵묵히 달려온 구로오늘신문의 존재가 새삼 고맙습니다.



윤 건 영
(더불어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쉽지 않은 여건을 묵묵히 감당하며 지역언론의 한길을 걸어온 구로오늘신문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로오늘신문이 지난 26년 동안 그랬듯 앞으로 30년, 50년, 나아가 100년을 묵묵히 구로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구로오늘신문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웃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주시리라 믿으며 독자 여러분들께 도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역 내 민주주의 위해 앞장서 보도를”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 김재식 변호사입니다.

구로오늘신문이 우리 구로에 뿌리를 내린지 벌써 26년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6년 동안 단 한 번의 결해도 없이, 구로의 구석구석을 살펴온 구로오늘신문의 김유권 대표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구로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로오늘신문을 통해, 저는 우리 지역 내 코로나로 인하여 소외받는 주민의 삶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스런 현실을 접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폐업지원 대책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의



김 재 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

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코로나 방역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같은 인간 존엄에 관계되는 기본권이 가볍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로오늘신문과 같은 언론기관에서 지역 내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

서서 용기 있게 취재하고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구로오늘신문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구로오늘신문이 구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론지로서 계속 발전하기를 주민들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로의 뿌리깊은 나무가 되어주시길”

구로오늘신문이 ‘구로의 오늘’입니다.

구로을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6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동안 구로오늘신문은 850차례 구로구 소식을 전하면서 지방자치 역사를 개척해왔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발전하고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지방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없다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 사정에 정통한 지역 언론의 존재는 구청장과 구의원은 물론 국회의원, 시의원이 지역 발전을 위해 한눈팔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견인차 역할입니다.



김 용 태
(국민의힘 구로을 당협위원장)

한편으로 지역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 애정 어린 시선으로 미담을 발굴하고 생활 속의 영웅을 조명하는 역할도 지역 언론의 소중한 사명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우리 구로 지역에서 지방권력과 정치권을 감시하는 정론지의 역할, 구로 주민과 울

고 웃던 동반자의 역할을 해온 구로오늘신문이 다가올 26년은 물론 구로가 진정한 수도 서울의 중심,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날까지 구로구의 뿌리깊은 나무가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 번 구로오늘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윤건영

언제나 구로구민의 올바른 길을 열어주는 길잡이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민원의 날’을 통해 윤건영 의원이 구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매주 금요일, 윤건영 의원 사무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로구 구로중앙로 60, 대림오페라타워 301호 (문의) 02-2632-0325

“지역의 작은 목소리, 작은 변화까지 지면에 반영을”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역언론으로서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매진해 오신 구로오늘신문 사 김유권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의 작은 목소리, 작은 변화까지도 지면에 잘 담아서 우리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하고 세심한 보도가 필요한 때



이 호 성
〈정의당 구로지역위원장〉

입니다. 지역언론의 존재가 다시금 가치있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같은 재난이라하더라도 그로인한 고통의 크기는 처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6주년을 맞이한 구로오늘신문에 욕심을 부려 봅니다.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내는 언론,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간적 존엄을 보장하고 지켜주는 따뜻한 언론으로 더욱 큰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사랑받는 언론으로 변창하시길”

구로오늘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그간 구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구민과 함께 호흡해 온 구로오늘신문 임직원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생활 밀착형 정보 전달과 올바른 정책 비판을 통해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변함없이 사랑받는 언론으로 변창하시길



이 학 만
〈민주평통 구로구협의회장〉

지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우리 사회도, 민주평통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면서도 평화·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활동들이 멈춤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을 내야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이 앞장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로오늘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축하드리며, 지역사회를 화합과 통합으로 일구는 소통의 통로로써 신뢰받는 정론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역주민 여론 선도, 창간 26주년 진심으로 축하”

디지털 구로의 발전과 함께 지난 26년간 지역 특유의 전문성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선도하며 발전해 온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로오늘신문은 우리 현대사의 희로애락을 시민과 함께하며, 공유·정의·복지의 창간 이념으로 깊이 있는 취재와 차별화된 뉴스로 우리지역 구로에 최적화된 알찬 정보,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올해 우리 구로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민과의 접촉 치안 활동이 제한되는 등 범죄예방과 주민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 다져진 위기극복의 힘으로 언택트 위주의 신속하고 과감한



이 병 귀
〈구로경찰서장〉

혁신을 통해 안정된 치안 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구로오늘신문은 그동안 지역전문 정론지를 표방하면서 지역발전에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타 언론매체와 차별화된 구로구의 전문 언론매체로 발전해왔으며 올바른 언론관을 가지고 독자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면서 구로오늘신문이 초심을 잊지 않고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최고의 지역전문지 '구로오늘신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공정, 정확한 보도로 지역공동체 이끌어가는 언론사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로구민의 대표 지역신문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구로오늘신문이 올해로 벌써 창간 26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구로소방서 직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감염병과 각종 크고작은 사고들로 인해 올 한해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였습니다. 구로구 및 금천구를 지키는 우리 구로소방서는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신속히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늘 약속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 직원 마스크



권 오 덕
〈구로소방서장〉

착용 근무 및 비대면 온라인소방안전교육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무더운 여름 폭염, 가뭄, 홍수 대형화재 등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긴급대응태세를 유지 했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대시민 119안전운동 전개, 주택용소방시설, 소·소·심 및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 등 재난 사고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활동 강화, 선제적인 재난 대응태세로 늘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로오늘신문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확한 소식으로 구로구민 마음속에 뿌리내려 지역 내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지역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신문사가 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 동 웅
의장



박 윤 희
부의장



조 미 향
운영위원장



박 중 여
행정기획위원장



최 속 자
복지건설위원장



서 호 연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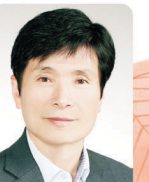
박 철 성
의원



정 대 근
의원



김 영 곤
의원



박 병 길
의원



김 희 서
의원



김 철 수
의원



이 재 만
의원



정 형 주
의원



이 명 숙
의원



노 경 숙
의원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구로구의회가 꿈꾸는 최고의 가치는
46만 구로구민의 행복입니다.
우리 의회는 언제나 주민 편에 서서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에 밝은 에너지 기사를”

구로오늘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주제별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 오신 김유권 발행인과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의 언론은 기존의 ‘정보전달’이라는 기본적인

기능 외에도 ‘사회에 대한 비판관 감시, 견제’라는 역할을 더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올바른 진실 보도와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은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주



최문식
(구로문화원장)

민들의 알권리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지역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지역신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시대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굴곡의 세월을 헤쳐 나온 구로오늘신문이기에 잘 대

응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구민에게 밝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기사가 지면에 채워졌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창간 26주년을 축하드리며 구로오늘신문의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구민 여론 수렴, 지역발전의 원동력 제공 감사”

초유의 코로나19 급속으로 삶의 패턴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포털사이트를 자주 검색하고 텔레비전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만큼 정확한 정보와 뉴스가 우리에게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



김한기

저 역시 여느때 보다 지 사회복지법인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장) 언택트시대 단절로 인하여 역에서 발생하는 소식에 촉각을 세우며 ‘구로오늘신문’ 기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구로오늘신문’은 늘 새롭고 정확한 소식과 지역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내고 전달해 주었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창간 26주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신뢰받고 구로 대표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채찍질로

말미암아 사회현상은 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호소에 응답하기 위하여 건강한 소비의 순환고리를 이어가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지역내 결혼이주민과 소외된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이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과거 이 지역은 ‘구로공단’이라는 이름으로 ‘한강의 기적’을 보여준 역동적인 지역으로 우리에게 국난을 극복하는 DNA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는 현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민 곁에서 지난 26년간을 지켜온 ‘구로오늘신문’의 탄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대표 정론지로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길”

지역사회 발전과 구로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장 서온 <구로오늘신문>의 창간 26주년을 구로구 상공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언론의 역할은 더해 중요해집니다.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서울상공회의소 구로구상공회장> 특히 지역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앞장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곳곳에서 지역 사회와 독자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로오늘신문>김유권 대표님과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고, 더욱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호성

(서울상공회의소 구로구상공회장)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로오늘신문>이 창간 26주년을 계기로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대에 이바지하는 언론이 되길 기원하며, 특히 지역경제와 지역 균형 발전에도 앞장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곳곳에서 지역 사회와 독자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구로오늘신문>김유권 대표님과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고, 더욱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60~65세 취업 원하시면 전화하세요 (경비/청소등 전문 무료 알선 기관)

100세 시대... 아직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과연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을까?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는 60세 이상 구직을 원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취업상담 및 구직 알선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전화 또는 방문해 주세요.

○준비서류 : 이력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월~금 09:00~17:00)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

구로구지회 (신도림역 2번출구, 02)852-459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8길39, 1층

축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동네 ‘좋은 이웃’ MG새마을금고



▲ 코로나19 극복 후원성금 500만원 전달



MG새마을금고

구로·금천구 이사장협의회장 이계명 외 이사장 일동

구로·금천구 이사장협의회 회장	이계명	고척 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석용식
동구로새마을금고 이사장	이계명	개봉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용원
구로·금천구 이사장협의회 부회장	이계명	오류 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민혁근
구로 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석규	오류 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최성수
신도림 새마을금고 이사장	최재무	독산 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안영식
구로 3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조동하	금천서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충원
구로 5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재빈	독산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임영규
가리봉 새마을금고 이사장	남상호	금천남부 새마을금고 이사장	최병태
고척 1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배기택	시흥 새마을금고 이사장	고광의

‘정직·정확·정론’ 정신으로 달려 온 ‘구로’의 26년

창간 정신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로 봉사·공익사업에도 앞장

창간 26년 발자취

본지는1994년10월 창간정신을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로 정한이후 한결같이 구민과 호흡을 함께하는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노력해왔다. 지역신문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단 한번의 결호(缺號)도 없이 우직하고 묵묵하게 달려온 26년을 달려 오기까지는 황소와 같은 김유권 대표의 독심이 없었으면 어려웠을 것이다. 지난 4반세기 동안 구로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저변에서 활동을 한 기록의 한 장면들을 펼쳐 본다.



‘박수근 3대가 부르는 회상의 노래전’



박연옥씨의 ‘미인도전’



오류애육원 시집 ‘떠 다니는 저 종이배를 처럼’

98년 ‘한울타리봉사회’ 구성

본지가 본격적으로 지역봉사를 하기위해 만든 단체는 1998년도에 설립한 ‘한울타리봉사회’다. ‘한울타리봉사회’는 말 그대로 한가족처럼 서로를 위해 봉사를 하자는 뜻으로 설립했다. ‘한울타리봉사회’ 회장으로 초대회장은 조평열씨가 맡았다. 그후에 윤한수 회장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15여년 전 구청과의 문제로 막을 내렸다.

애육원생 문학지도 ‘시집’ 출간

2003년 오류애육원생들에게 집중적으로 문학지도를 한 결과 1년6개월만에 작은성과가 나왔다. ‘떠다니는 저 종이배를처럼’이라는 제목의 시집은 가정의 달을 맞아 도서출판 ‘토우’에서 출간됐다. 시집에는 버림 받은 아이들이 세상과 자신과 부모를 향해 속울음을 우는 슬픔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당시 한류스타였던 가

수 비와 배용준이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동지만들어주기운동본부’ 설립

오류애육원생들에게 문학지도를 하다가 만18세가 되면 그들이 동지를 떠나야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됐다. 만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고아원을 떠나야하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2006년5월 ‘한국동지만들어주기운동본부’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가두 서명 운동을 비롯하여 언론과 국회에 사실을 알려서 법개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한편 사회적 관심 갖기 운동을 벌였다.

숨어있는 예술가 발굴전 릴레이

• 박정희·김대중 전대통령 회호 서각전

본지는 재능은 있지만 빛을보지 못하는 예술가들을 발굴 양지로 내보내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09년 ‘목원’ 이재욱 서각가가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들이 남긴 회호를 새긴 서각작품들로

전시전을 열었다. ‘박정희와 김대중의 만남전’이라는 제목으로 9월 28일부터 10월2일까지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 ‘박수근 3대가 부르는 회상의 노래전’

2014년 10월7일부터 신도림역에 있는 디큐브시티백화점 현재 현대백화점에서 국민화가 故 박수근(1914~1965)화백과 후손 장녀 인숙, 아들 성남, 장손 진홍 3대가 그린 작품전을 열어 미술계에 잔잔한 감동을 선물했다.

• 한국의 미인도 전시전

한국 최고의 미인도 화가 박연옥씨의 미인도전이 구로아트밸리 전시실에서 2012년 11월5일부터 14일까지 열렸다. 구로구청과 구로오늘신문이 주최를 했다. 박연옥 화백의 미인도는 전통적인 한국여인상의 아름다운 자태를 화선지에 담았다. 전통한복을 입은 맑고 고은 눈 붉고 매혹적인 입술 보일 듯 말듯한 미소로 한국여인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그

려냈다.

• ‘죽전’ 구석고 화백 ‘송민’ 이주형 서예가 초대전

한국작 땀어주기 운동본부설립을 기념하기 위한 한국의 대가들 전시전이 2019년 7월2일부터6일까지 열렸다. 구로구루지 갤러리에 서열린 ‘죽전’ 구석고 화백의 한국화와 ‘송민’ 이주형 서예가의 작품 100여점을 기증 받아 전시했다.

‘죽전’ 구석고 화백은 호인 죽전(竹田)에서 집작할 수 있듯 대나무 꽃, 학, 물고기, 용 등의 자연과 동식물을 주로 그리며 깃털 붓으로 쓰는 글씨는 용(龍), 구(龜), 복(福), 불(佛) 등의 불가(佛家)적인 삶의 진리를 추구하는 화가다.

이주형 서예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입선 4회를 비롯 한국서예 청년작가전 5회, 선발초대작가 추사선생추모 전국서예백일장 초대작가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6년 고향에서 첫 개인전을 가진 이후 미국 하와이대학 초청 ‘아름다운 한글 서예전’ 예술의

전당 개관 15주년 기념특별전, 국제서법교류 서울 대전 등 10여차례의 국내외 전시회와 고향의 향토작가 초대전에 매년 참가 하고 있다.

‘한국 책나라 운동본부’ 설립

본지는 전국적으로 독서 열풍을 불러 넣기 위해 ‘한국 책나라 운동본부’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국 최초로 현재의 개념을 ‘중고책’이라는 개념으로 바꾼 한국 책나라 운동본부는 10여년 전에 설립하기로 계획했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보류해 왔다. 금번 창간 26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깃발을 높이 세운 책나라 운동본부에서는 중고책을 모아서, 벽지 작은 도서관이나, 한국책을 원하는 외국 등지에 배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도서축제를 열어서, 책 나누어 주기, 책 교환하기, 독후감 대회 등을 열어 책임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초대 사무국장으로는 전 구로구청 공무원이었던 김태용씨가 내정됐다.

(한만수 기자)

- ❖ 장편소설
- ❖ 시창작
- ❖ 수필창작
- ❖ 자서전쓰기

개인지도(초보환영)

문예창작실기 지도사 자격증

장편소설(초보기준)6개월완성

- 방과후 글짓기 지도교사
- 문화센터, 문화원 창작강의
- 평생교육센터 창작 강의

코로나!
방콕!
글이나 쓰자



한국문예창작진흥원

구로역 근처 02-2636-3765

“대표 지역신문으로 자리매김 진심으로 기원”

구로구 46만명의 햇살이 되어 늘 어둠을 밝혀주는 구로오늘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축하 합니다. 지난 26년간 구로오늘신문을 사랑하는 독자로 구로오늘신문은 구로구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실어 주었습니다.



이 계 명

(구로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장)

충분하지 못한 경제 사정인데도 단 한번의 결호가 없다는 점은 임직원 모두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잃지 않은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 구로오늘신문은 창간 26주년이 라는 위대한 역사를 바탕으로 지역주

민의 작지만 소중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어둡고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들의 친구로 더욱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올바른 보도를 통해 구로 구민의 눈과 발이 되어 주시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구로오늘신문의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울 지역신문사들이 끌어 가는 대표 지역신문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임직원 및 독자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공정한 보도로 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언론”

구로구를 대표하는 지역신문으로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올바른 시선으로 전하고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다하는 구로오늘신문이 창간 2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문 현 일

(충남도민회중앙회 회장
충청항우회 구로구연합회 회장)

그간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도 오랜 시간 구로구를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올바른 취재와 보도를 위해 진력해 오신 김유권 대표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300만 충남출신 출향인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오늘신문은 자타가 공인하는 구로구의 대표 지역 언론지로서 정론직필의 객관성을 갖고 공정한보도로 지역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 내고 지역발전의 중

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으로서 구로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전달로 사랑과 믿음 속에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정론지로서 지속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등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구로오늘신문이 시민의 입과 발을 자처하여 정확하고 균형감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난 극복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론직필’의 초심 정신 잊지 않으시길”

구로오늘신문 창간 제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구로구의 성장과 변화의 증인으로 구민들의 등대가 되어 주신 점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영 수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장)

언론에 대해 깊이있는 상식은 없으나 소박한 바람은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이 바로 보고 바른 생각으로 경세필봉(驚世筆鋒)하여 우리 구로지역 발전과 구민을 일깨워 주시고 특히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관련 상식을 많이 다뤄 주셨으면 합니다.

구로오늘신문이 발행될 때면 구로구민은 지역에 대해 더 잘 알게 돼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은 서로 위로하며 극복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로구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안전을 강화하고, 규제를 정비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요즘 구로오늘신문의 역할은 지역에서 계속 커질 것입니다.

끝으로 정론직필의 초심을 잊지 않고 한결같이 26년을 걸어 온 김유권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6년 오랜 세월 모진 비바람 이겨 낸 언론에 박수”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송 희 순

(송림가·실크로드 대표)

구로오늘신문 임직원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변한다고 합니다. 26년이라는 오랜 세월동안 모진 비바람을 꿋꿋이 이겨내고 지금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겪었을 수많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으셨는지 옆에서 지켜 본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 동안 구로 지역의 신선한 공기로써 지나온 발자취들을 한 번 되돌아보고 초심의 마음으로 재정비 하기를 제안합니다.

구로오늘신문도 정론직필의 자세를 견지함에 있어서 행여 소홀함이 없었는지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결여 되었는지, 약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반문해 보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나온 26년의 세월을 밀천삼아 앞으로 새로운 일상의 변화와 새로운 희망의 구민과 함께하는 26년을 기획하고 설계하여, 구민들에게 더욱 친숙한 신문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구로오늘신문 구독 및 광고 문의 010-9096-1144

회원의 행복을 위한 MG신도림새마을금고가 되겠습니다



축 구로오늘신문 창간 26주년을 축하합니다

주요 사업

☞ 산지직송 회원 원가판매

신안소금, 남해마늘, 멸치액젓
해남절임배추

☞ 회원을 위한 건강기구 설치

혈압측정기, 자동 심장충격기

☞ MG봉사단 운영

매달 환경캠페인 및 사랑의 밀반찬 봉사

☞ 기타 지역 회원 사업

새마을협의회 방역사업 지원
어르신 경로잔치
사랑의 줌소리 운동

☞ 출생축하금 지원

신도림동 출생신고 세대에
자녀이름 통장개설시 출생
축하금 지원

☞ 주민 취미교실 운영

노래교실, 요가교실, 통기타교실,
스마트폰교실, 골프동호회 운영 등

☞ 업무협약

- 모아치과
- 제중요양병원
- 바른병원
- 법무법인 광명

신도림새마을금고

본점 : 2677-1106 성광지점 : 2677-9480